

## 전략 인사이트/투자전략

### AI 미니 버블 가능성, 한국 닷컴버블의 트리거는?

현재 한국 AI 산업은 ① 기술의 대중화, ② 정부의 산업 육성, ③ 유동성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산업 성장 당시와 환경이 유사합니다. 학습효과로 인해 극단적 버블 및 급락이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미니 버블 발생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한국형 AI 성장주를 주목할 시점입니다.

이상준 (주식전략 Jr.)  
02)768-7019, jun10721@nhqv.com

#### '90년대 인터넷 산업 성장도 늦었던 한국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된 한국은 과거 인터넷 산업 성장도 늦었음. 당시 산업 후발주자+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IMF 외환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다만 '98년 이후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① 인터넷 대중화, ②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 육성, ③ 유동성 환경 개선이 성장 트리거로 작용했기 때문

#### ①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술의 대중화

인터넷의 대중화는 인터넷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이어지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IT 기업들의 등장 배경이 되었고, 이 기업들이 다시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켰음.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AI 대중화의 시발점이 된 가운데 한국에서도 다양한 AI 기업 및 서비스가 등장. 기술의 대중화는 인터넷 산업 성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정책 및 유동성과 맞물리며 한국 AI 산업 성장의 큰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② 성장을 가속화하는 정부의 산업 육성책

인터넷의 대중화가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등장 배경이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 육성책은 이들의 성장을 가속화. 특히 인터넷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한국 인터넷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김대중 정부가 IT 산업 육성에 힘썼듯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한국형 AI 개발, R&D 확대, AI 인프라 구축 등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 이는 한국의 열악한 AI 산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

#### ③ 성장의 또 다른 배경, 유동성 환경 개선

1995년 Fed의 기준금리 인하, 1998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 환경 개선은 인터넷 산업 성장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 2025년 Fed는 Hard Data의 둔화를 반영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전망이며, QT(양적긴축) 역시 종료할 것으로 예상. 5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전망

## 한국의 AI 랠리 소외

###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한국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 진행된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되었다.

2022년 11월 OpenAI가 ChatGPT를 공개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AI 랠리가 시작됐다.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주도주 역할을 했으며,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 전반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SK하이닉스 등 일부 HBM 관련 기업들이 AI 수혜주로 부각됐으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향 HBM 납품이 지연되며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수혜 기대가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동기간 나스닥은 물론 대만(TSMC), 일본(도쿄일렉트론, 어드반테스트) 주식시장 대비로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그림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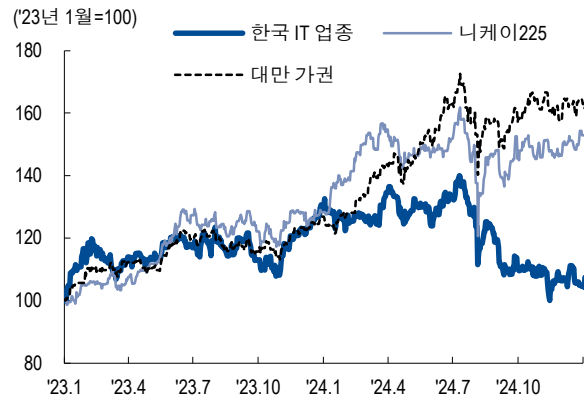
올해 초 딥시크 쇼크로 미국 외 국가의 고성능 AI 개발 기대감이 나타났으나 이 때도 한국형 AI를 개발하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종 주가 상승은 제한됐다(그림4 참조).

그림1. 한국은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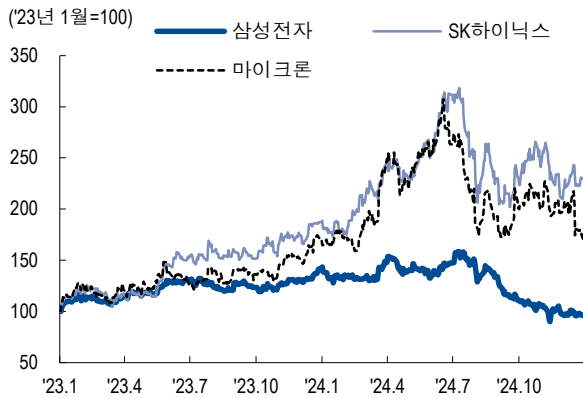
주: 한국 IT 업종 주가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FnGuide,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대만, 일본 대비로도 낮았던 AI 수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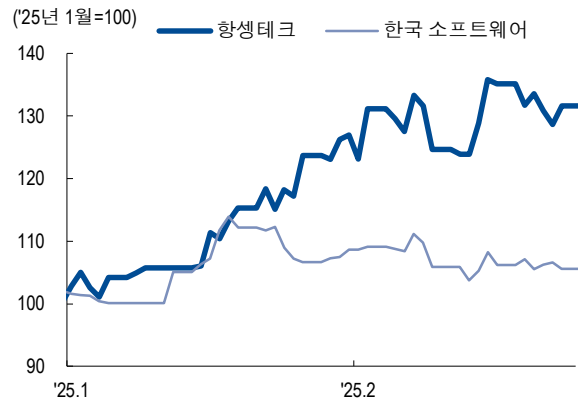
주: 한국 IT 업종 주가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업종 지수를 평균하여 산출  
자료: FnGuide,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HBM 기술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



자료: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딥시크 쇼크 이후 항생테크와 한국 소프트웨어 주가 비교



자료: FnGuide,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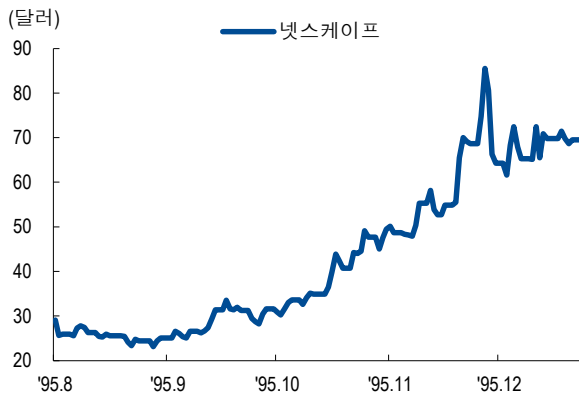
**'90년대 인터넷 산업 성장도 늦었던 한국**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인터넷 산업의 성장도 느리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나타난 시점도 미국 대비 늦었다(닷컴버블의 시작 시점을 미국은 1995년, 한국은 1999년부터 보는 견해가 다수).

일반적으로 미국 닷컴버블의 시발점을 웹 브라우저 개발 기업인 넷스케이프의 IPO로 보는데, 당시 수익이 없었던 넷스케이프가 성장 기대감만으로 IPO 흥행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넷스케이프는 상장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며 인터넷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크게 높였다(그림5 참조). 당시 한국 역시 인터넷의 성장성에 주목했으나, 산업 후발주자+열악한 인터넷 인프라, IMF 외환위기 등으로 발전이 지연됐다(그림7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한국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결국 IT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 이는 ① 인터넷 대중화, ②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 육성, ③ 유동성 환경 개선이 성장의 트리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림5. IPO 이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 기록한 넷스케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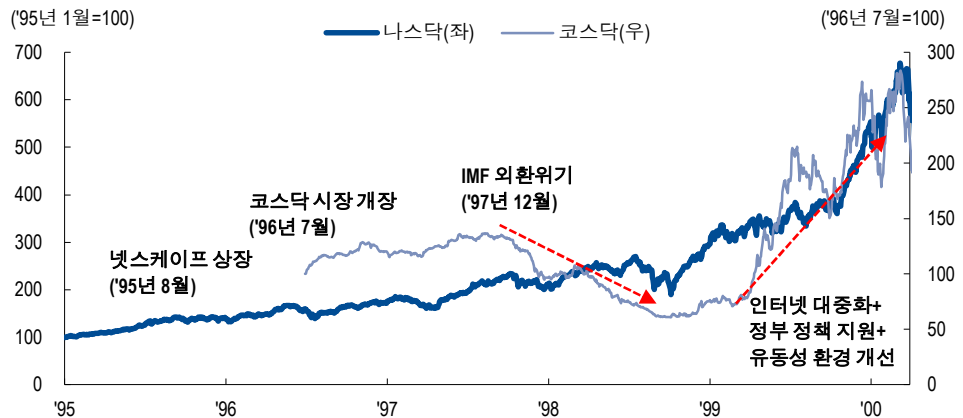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IPO 흥행으로 타임 표지까지 장식한 넷스케이프 창업자



주: 사진 속 인물은 넷스케이프의 창업자인 마크 안드리센  
자료: Googl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7. 미국 대비 늦었던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성장



자료: FnGuide,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① 기술의 대중화

#### 인터넷 대중화를 이끈 넷스케이프

인터넷의 대중화는 인터넷 서비스 수요 확대로 이어지며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다양한 IT 기업들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다시 인터넷 산업을 성장시켰다.

1990년 팀 버너스리가 HTML 언어와 웹(WWW)을 개발하면서 인터넷 대중화의 길이 열렸다. 웹이라는 공간에서 웹 브라우저(ex. 크롬, 익스플로러 등)를 통해 다양한 웹사이트(ex. 구글, 네이버 등)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때까지도 인터넷은 전문가의 전유물에 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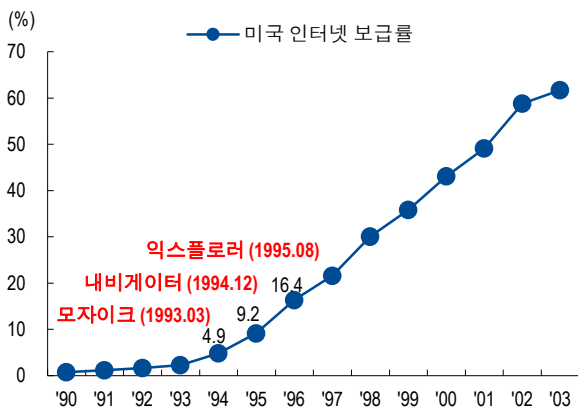
인터넷 대중화가 본격화된 것은 1994년 넷스케이프가 범용성을 크게 높인 웹 브라우저 '내비게이터'를 공개하면서이다. 일반인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웹 환경이 조성되면서 미국의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 가능한 웹사이트가 크게 늘어났다(그림8, 9 참조).

####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의 등장

인터넷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확대됐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인터넷 기업들이 등장했다. 포털 서비스 기업 야후('94년 설립),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94년 설립)과 이베이('95년 설립), 검색엔진 기업 구글('98년 설립) 등이 대표적이다(다음 페이지 그림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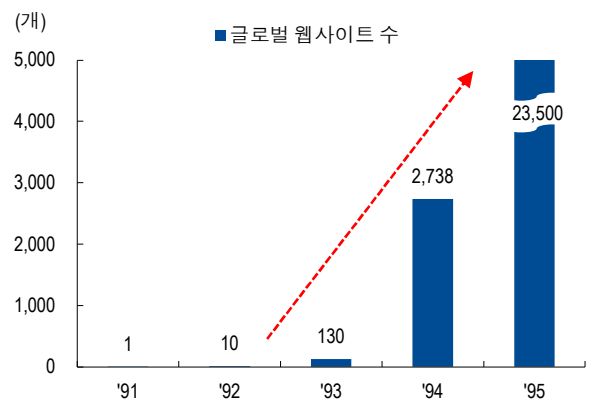
한국은 인터넷 산업 발전은 느렸으나 미국 내 대중화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한국에서도 포털 서비스 기업 다음('95년 설립)과 네이버('99년 설립), 전자상거래 기업 인터파크('96년 설립), 온라인 게임 기업 네오위즈('97년 설립) 등 다양한 인터넷 기업이 등장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유동성 환경 개선과 맞물려 한국 인터넷 산업 성장의 큰 동력이 되었다.

그림8. 범용 웹 브라우저 출시와 함께 인터넷 보급률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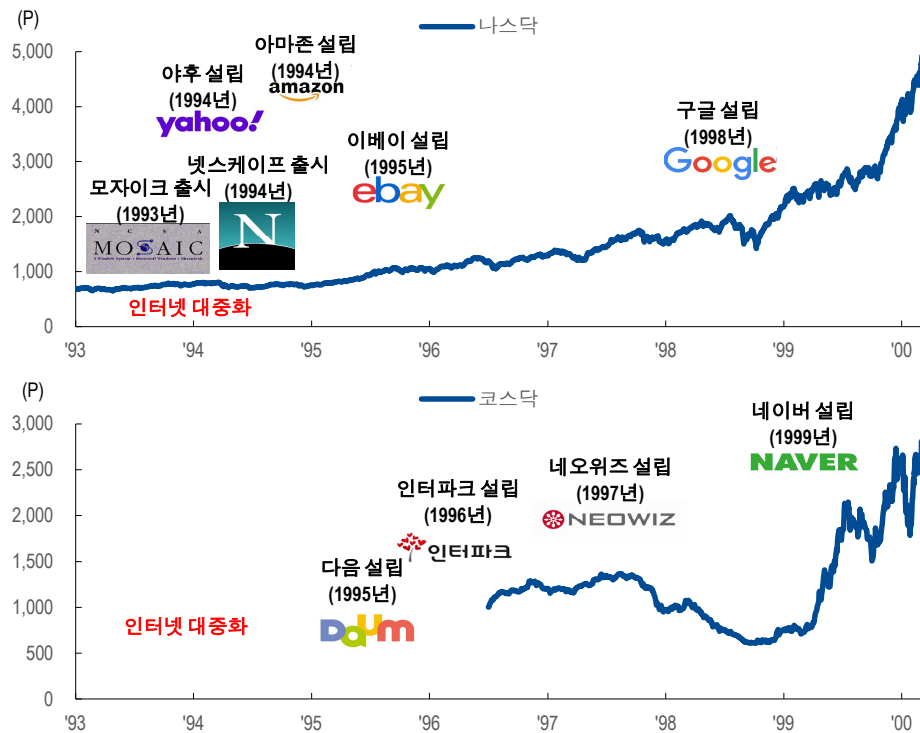
주: 모자이크는 미국 NCSA에서 출시한 범용 웹 브라우저로, 넷스케이프 창업자 마크 안드레센이 개발. 모자이크를 발전시킨 모델이 내비게이터  
 자료: ITU,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9. 인터넷 대중화로 글로벌 웹사이트 수도 빠르게 증가



자료: Internet Live Stats,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인터넷 대중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터넷 기업 등장



자료: Google, LSE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I 대중화의 시작을 알린 생성형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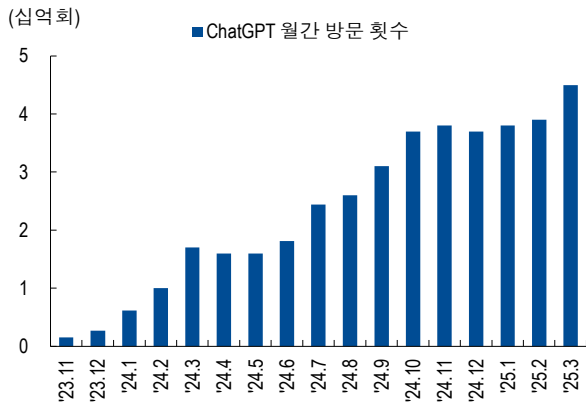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가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면 OpenAI의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는 AI 대중화의 시발점이 됐다.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AI를 이제는 **업무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ChatGPT의 월간 방문횟수가 45억회를 기록했는데 이는 AI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11 참조).

AI 대중화 흐름 속 한국에서도 다양한 AI 기업 및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그림12 참조). 한국형 AI 개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 등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기업들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대중화 흐름 속에 등장한 기업들이 인터넷 산업 성장을 이끌었듯, 이들 AI 기업들이 향후 한국 AI 산업 발전을 이끌 전망이다**.

**AI 대중화를 가속화할 MCP와 A2A**

최근 AI 대중화를 가속화할 기술로 MCP(AI와 도구 연결), A2A(에이전트 간 연결) 등이 주목받고 있다(그림14 참조). MCP는 AI와 외부 데이터 소스 및 도구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며, A2A는 AI 에이전트 간 대화 및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토콜이다. 즉, MCP와 A2A는 AI의 연결성을 높여 AI의 생태계를 확장시킴으로써 AI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11.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ChatGPT 사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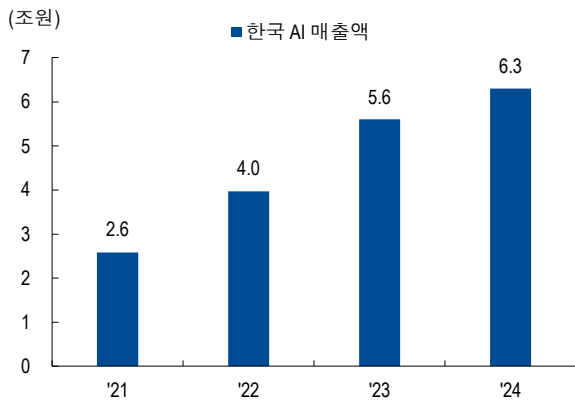
자료: Demandsag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한국에도 다양한 AI 기업 및 서비스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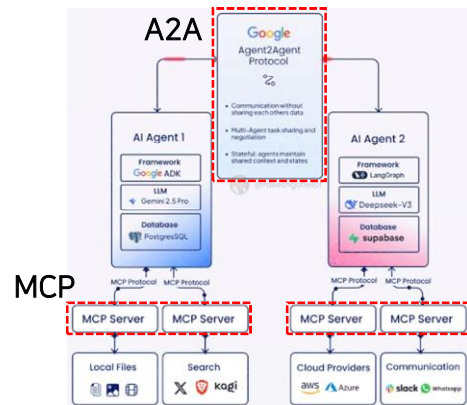
자료: Googl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3. 한국 기업들의 AI 관련 매출액 추이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4. AI 생태계를 확장시킬 기술, MCP와 A2A



자료: LearnOpenCV,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② 정부의 산업 육성책

### 김대중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인터넷의 대중화가 한국 인터넷 기업들의 등장 배경이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IT 산업 육성은 이들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 출범한 김대중 정부(1998~2003)는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시대적 흐름이기도 했다. 앞서 미국이 IT 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했고, EU, 일본 등도 정보화 전략을 추진했다.

후보 시절부터 1인 1PC 보유 시대를 언급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IT 산업 육성책, '사이버 코리아 21'은 4년간 총 28조원을 투입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18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보 인프라의 확충,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새로운 IT 비즈니스 육성 등이 사이버 코리아 21의 핵심 추진 과제였다(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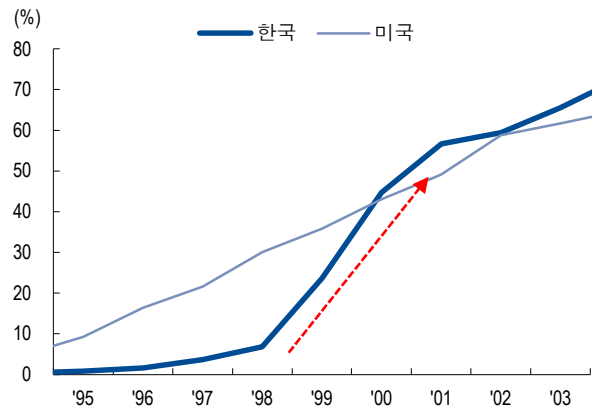
특히 초고속 인터넷(ADSL) 보급(인프라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그림15~16 참조). 이 같은 인터넷 인프라의 발전은 다음, 네이버 등 다양한 IT 기업들의 성장 배경이 되었다.

표1. 김대중 정부의 '사이버 코리아 21' 주요 내용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정보 인프라 확충	- 정보통신망 고속화·고도화(초고속 인터넷) - 지식기반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도 정비 - 1인 1PC
국가 전반 생산성 향상	- 정보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지식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 - 신지식인화 운동으로 개인의 역량 강화
새로운 IT 비즈니스 육성	-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IP 산업 육성 - SW 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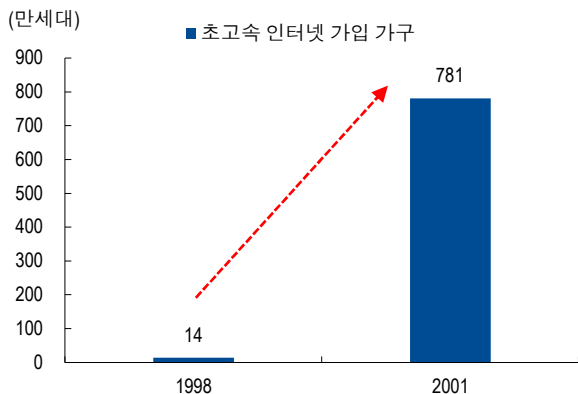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사용 인구 비율 추이



자료: World Bank,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6.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 급증



자료: 컴퓨터월드,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7.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브랜드



자료: 언론 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재명 정부,  
AI 3강 도약 목표**

김대중 정부가 IT 산업을 택했듯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를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선택, 글로벌 AI 3강 도약을 목표로 설정했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AI 정책을 총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은 크게 1) 한국형 AI 개발, 2) R&D 지원 확대/AI 인재 양성, 3) AI 인프라 구축, 4) 규제 완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표2 참조). 주요 내용으로 AI 관련 예산 증액, AI GPU 최소 5만장 확보,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 대표 AI 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열악한 AI 산업 환경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그림18, 19 참조).

**AI 투자  
100조원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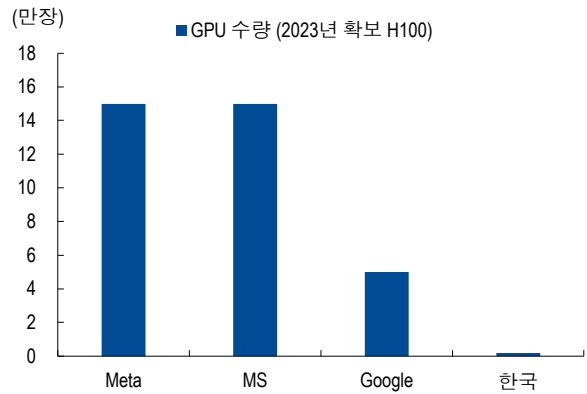
AI 공약 실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5년간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약속했는데, 이는 그동안 주요 AI 강국 대비 투자 규모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일 전망이다. 2024년 기준 한국 AI 민간투자 규모는 13억달러로 AI 육성 국가 Top 10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인 바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그림20 참조).

표2.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련 공약 내용

공약	주요 내용
투자	- 과학기술 R&D 예산 대폭 확대 - AI 관련 예산 선진국 이상으로 증액
제도/규제	- AI 산업생태계 조성 위한 법률 정비 - AI 규제특구 확대
인프라	-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 고성능 AI GPU 최소 5만장 확보, NPU 개발
교육/연구	-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강화 - AI 단과대 설립, AI 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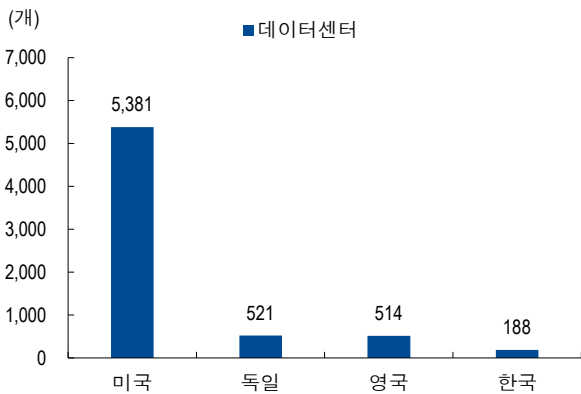
자료: 공약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8. 한국의 열악한 AI 산업 환경 - G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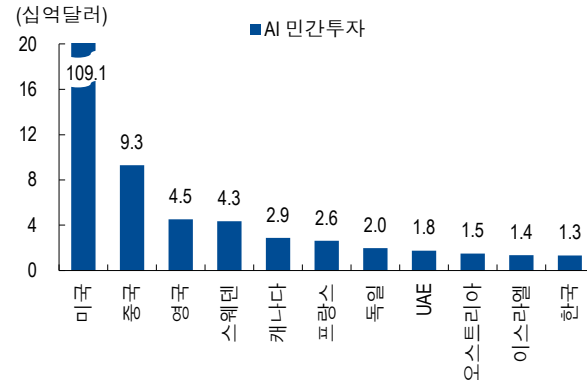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9. 한국의 열악한 AI 산업 환경 - 데이터센터



자료: 날리리서치그룹,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0. 한국의 열악한 AI 산업 환경 - 투자 규모



주: 2024년 기준  
자료: 스탠퍼드대 HAI,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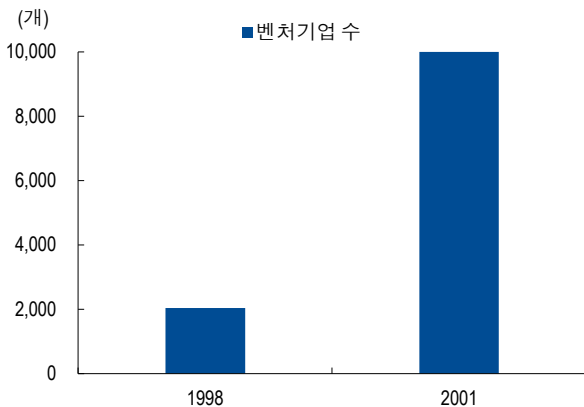
### 3차 벤처붐

김대중 정부가 IT 산업 정책과 더불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추진한 것이 바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 지원 자금 조성', '코스닥 시장 등록 요건 완화', '벤처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의 지원 정책을 실행했으며, 이를 통해 벤처기업 수는 1998년 2,042개에서 2001년 1만개를 돌파했다(그림21 참조). 벤처붐은 IT 산업 정책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고용 창출은 물론 I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붐을 1차로 본다면, 2차 벤처붐은 문재인 정부(2017~2022) 당 시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모태펀드 8,600억원 출자, 1.4조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 등이 이뤄지며 벤처투자가 활성화됐다. 당시는 4차 산업 혁명이 경제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때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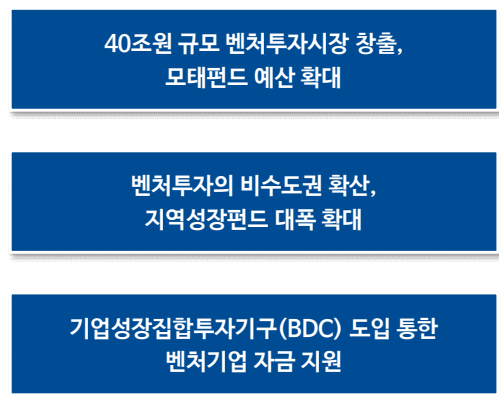
벤처투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지원을 제시하며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창출', '퇴직 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정부의 벤처 지원 정책은 AI 산업 육성책 과 시너지를 일으키며 3차 벤처붐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23 참조).

그림21.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책으로 벤처기업 수 대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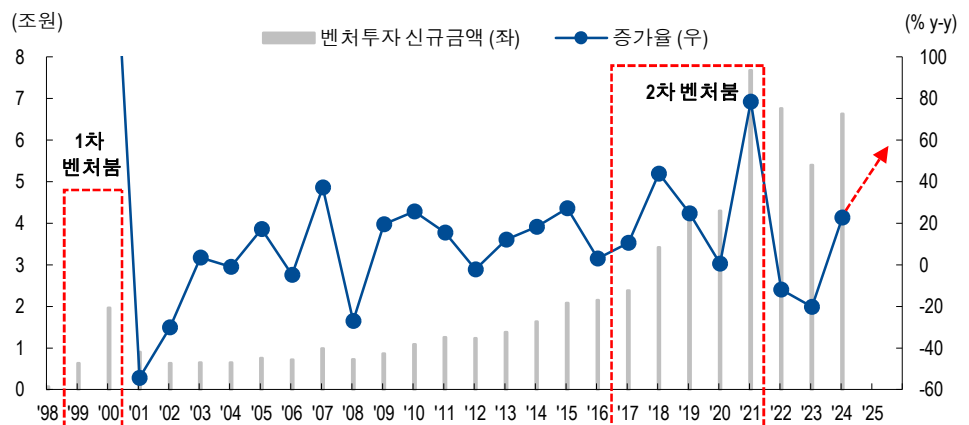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2. 이재명 대통령의 벤처기업 관련 공약



자료: 공약집,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3. 한국의 1, 2차 벤처붐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 ③ 유동성 환경 개선

#### 인터넷 산업 성장의 또 다른 배경, 유동성 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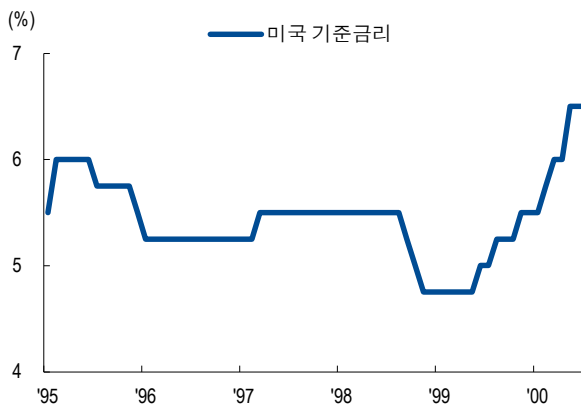
1995년 7월 Fed는 소프트랜딩을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이로 인한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인터넷 산업 성장의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했다(그림24 참조).

한편 한국은 IMF 외환위기로 외화가 급격히 유출되자 오히려 통화긴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이후 IMF 구조조정 이행과 외환시장의 안정화에 따라 1998년부터 통화완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유동성 환경도 개선될 수 있었으며 이는 인터넷 산업 성장의 원인이 되었다(그림25 참조).

#### Fed와 한국은행,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

2025년 Fed는 Hard Data의 둔화를 반영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할 전망이다(그림26 참조), QT(양적긴축) 역시 종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해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하반기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그림27 참조). 이러한 금리 전망은 한국형 AI 성장주 주기에 정책 기대감과 더불어 유동성 환경 개선이라는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24. 인터넷 산업 성장의 배경이 된 Fed의 금리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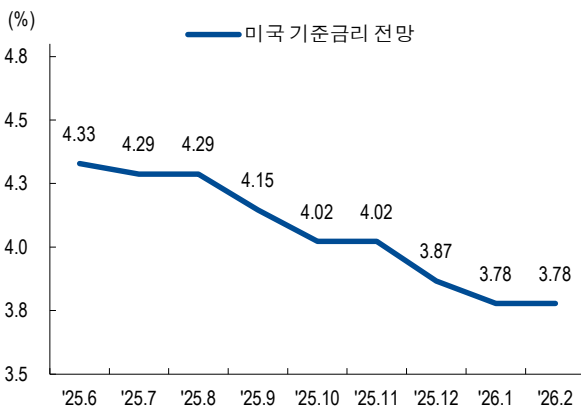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5.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화 이후 통화완화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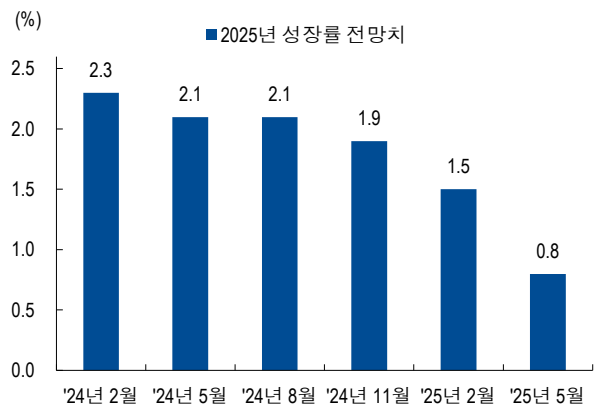
주: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공식적인 기준금리가 없었으나 콜금리가 통화정책 방향성을 반영하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했음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6. Fed,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재개 전망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7. 한국은행의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변화



자료: 한국은행,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결론: 하반기 한국형 AI 성장주에 주목(지수 관점에서는 코스닥)**

**AI 미니 버블 가능성 존재**

현재 한국 AI 산업은 ① 기술의 대중화, ② 정부의 산업 육성책, ③ 유동성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산업 성장 당시와 환경이 유사하다(그림28 참조). 하반기 한국형 AI 성장주(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습효과로 인해 극단적 버블 및 급락 형태가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술의 확장성에 따라 합리적 수준의 미니 버블 발생 가능성은 존재한다.

지수 관점에서는 코스닥 지수를 주목해야 한다. 시장 구조상 벤처·중소기업의 비중이 코스피 대비 높아 정책 모멘텀이 더 크게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인터넷 산업 성장에 따른 IT 주가 랠리 당시에도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한 바 있다(그림29 참조).

**리스크 요인**

다만, 차기 정부의 AI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Fed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는 한국 AI 모멘텀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1호 공약이 AI 산업 육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 기조가 변하거나 추진 동력이 약해지진 않을 것이다. Fed의 경우에도 관세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2019년과 마찬가지로 Hard Data의 둔화를 반영해 하반기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즉, 상기 요인들로 인한 한국 AI 모멘텀의 약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 판단한다.

그림28. 한국 인터넷 산업 성장과 AI 산업 성장의 트리거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9. 인터넷 산업 성장 당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 비교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Appendix. 한국형 AI 관련 상장 기업 리스트

코드	종목명	Valuation(배)						실적 Momentum (% y-y)				시가총액 (십억원)
		PER		PBR		ROE		매출액		영업이익		
		'25F	'26F	'25F	'26F	'25F	'26F	'25F	'26F	'25F	'26F	
A035420	NAVER	16.6	14.5	1.1	1.0	6.8	7.3	10.6	9.4	14.9	14.2	31,450
A030200	KT	7.5	8.9	0.7	0.7	9.9	8.0	4.7	0.0	204.2	-11.9	12,752
A035720	카카오	48.3	41.5	2.1	2.0	3.5	3.8	1.0	8.1	17.1	25.5	22,704
A328130	루닛	N/A	N/A	8.2	36.8	-29.7	-55.5	58.2	26.7	9.9	25.2	1,469
A030520	한글과컴퓨터	16.1	13.6	1.9	1.7	8.3	9.4	12.0	11.3	35.7	21.1	719
A304100	솔트룩스	-	-	-	-	-	-	-	-	-	-	651
A402030	코난테크놀로지	-	-	-	-	-	-	-	-	-	-	468
A108860	셀바스AI	146.4	71.4	-	-	-	-	15.3	11.9	1,743.8	44.4	439
A338220	뷰노	434.7	39.2	9.6	7.7	1.8	21.6	59.5	41.0	99.5	12,850.	290
A047560	이스트소프트	N/A	-	-	-	-	-	28.9	-	100.7	-	260
A096250	와이즈넷	-	-	-	-	-	-	-	-	-	-	251
A377480	마음SI	-	-	-	-	-	-	-	-	-	-	181
A322510	제이엘케이	-	-	-	-	-	-	-	-	-	-	168
A315640	딥노이드	-	-	-	-	-	-	-	-	-	-	153
A300080	플리토	-	-	-	-	-	-	-	-	-	-	130
A226330	신테카바이오	N/A	N/A	-	-	-	-	4615.1	157.9	28.5	80.4	126
A413640	비아이매트릭스	15.8	10.4	3.0	2.4	20.9	25.8	44.4	33.8	222.4	54.6	111

주1: 6월 9일 종가 기준

주2: 상기 종목은 특정 지표 관점에서 추출한 종목으로써 추천종목이 아님

주3: "-"는 추정치가 없음을 의미

자료: FnGuide,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 사항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의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분석한 결과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위해 작성된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 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